

이상적인 인체미 구현을 위한
복식 디자인의 착시효과
-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까지 -

이 옥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Optical Illusions in Clothing Form Designs for the Ideal Beauty of
Human Bodies**

- from the Ancient Egypt to the Romantic Period -

Ock hee Lee

Dept. of Education for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2000. 12. 2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ideal beauty of human bodies and the related clothing form designs from the ancient Egypt to the Romantic period in the aspect of optical illusions effects to achieve the ideal beauty so that we can accumulate the knowledges for the modern clothing form design and the related optical illusion effect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female body forms and female dress forms. The analysis on the optical illusions in the dress forms of the various period relied on the literatures and some representative photographs and figures.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the body priority type designs of Egypt, Greece and Rome, the natural Beauty of human bodies was represented by H type silhouett, the smooth and transparent drapery materials were used with radiant line pleats resulting in slant optical illusions.

2. In the clothing priority type designs of Byzantine, Gothic, Renaissance, Baroque, Rococo and Romantic period, manteau, cotehardie, hennin and poulain were used to emphasize long arms and legs, high waists, belly curves and large heads resulting in optical illusions of vertical emphasize.

Also long train, farthingale and panier were used to emphasize body expansion resulting in the optical illusions of Titchener and Lipps. Large and complex patterns showed the optical illusions of Aubert.

3. In the clothing priority/body concealment type of Byzantine period, thick materials with precious gems and voluminous silhouettes were used to emphasize body expansion resulting in optical illusions of materials.

Key word : optical illusion(착시), clothing form(복식), ideal beauty of Human Body
(이상적인 인체미), Titchener-Lipps optical illusion(티체너-립스 착시),
Aubert optical illusion (오버트 착시)

I. 서론

현대 여성의 인체에 대한 미의 기준은 신장 및 체중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체형이 인체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매우 마른 몸매가 가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면서 이 시대가 선호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복식 디자인으로 착시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더 쉽게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현재의 이상화된 인체미를 표현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이상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의 지각반응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신체적 자기를 최대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복식에서의 착시는 외모를 조절하고 문화적 수용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체적 요소는 우리 자신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나 복식의 미적 요소는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착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복식의 사용은 대중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최근에 기업들이 차별화를 위해 기업이미지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면접할 때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패션코디네이터나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지 컨설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체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식의 착시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의복디자인 분야는 감각과 응용을 중

요시 해왔고 실제로 이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이 분야의 연구발표는 부진한 상태로 70, 80년대에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0년대 들어 선과 색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 색채 등 디자인요소의 착시효과를 개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선과 색채의 총체적인 지각효과를 살펴본 연구와 착시효과에 대한 복식사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복식과 인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복식의 형태미와 착시현상을 파악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상적인 인체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인체미에 대한 변화를 사적으로 파악하고 과거에는 어떠한 복식 디자인으로 착시효과를 이루었는가를 통찰함으로써 현대 패션 디자인과 착시효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연구 목적을 이론적으로 밝히기 위해 패션디자인 요소에서 선, 형, 색채, 재질의 착시효과와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체형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적인 인체의 이상미와 각 시대별로 복식의 착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인체미와 착시현상을 사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인체미와 여성복식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지각 이론에서 착시 개념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하여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요소가 패션 디자인에 미치는 착시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인체의 물리적인 구조와 체형, 인체 비례에 대해 논의하고 인체와 패션

디자인의 착시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복식사적 연구로는 문헌 연구를 하며 연구 자료로는 문헌적 자료와 사진, 그림의 자료를 이용한다. 시대구분은 복식사 참고문헌¹⁾에서 시대를 구분한 것에 따랐으며 고대이집트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까지 나타난 시대적인 인체의 이상 미와 복식에 나타난 착시 효과를 조사하여 각 시대에 따른 인체 미와 복식의 착시효과에 대해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시각이란 눈이 우리 주위의 전자기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감각이란 눈이 이들 에너지들을 받아들여 두뇌로 전달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눈의 수용기관이 받아들인 에너지를 신경자극으로 전환시켜서 두뇌로 보내고 두뇌가 이 자극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시각이다.²⁾ 우리는 항상 사물을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투영되듯이 눈에 투영되는 것을 영상이 뇌로 전달되어 의미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본다고 할 수 있다.³⁾

Arnheim⁴⁾은 본다는 것은 하나의 시각적 판단이며 시각적 판단은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본다는 행동 그 자체의 성분 요소로 어떤 사물을 단번에 보아 버리는 본질이라고 하였다. 즉 본다는 것은 시각과 판단이 합쳐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감각적 인식과 정신적 인지의 두 과정을 통해 주위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본 장에서는 시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디자인 요소와 착시효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착시의 물리적 특성

시지각(Visual Perception)이란 시각적 감각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시지각 과정중 크기나 형태, 길이나 거리, 색채나 움직임과 같은 시각적 자극 속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시각적 해석을 "착시"(Optical Illusion)라고 한다.⁵⁾ 즉 인간의 눈이 여러 감각이

제공하는 단서로부터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 색채등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지각하는 생리적 착각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시각계와 환경의 실제 물리적 특성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착시는 똑같은 대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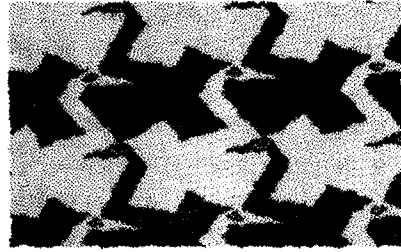
인간이 착시를 지각하는 원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⁷⁾ 물리적 근거는 모든 인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학습된 근거는 인간은 시각적 형상을 보고 해석하는 법을 학습하며 문화에 따라서도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시란 우리 내부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현상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지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태지각의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복식디자인과 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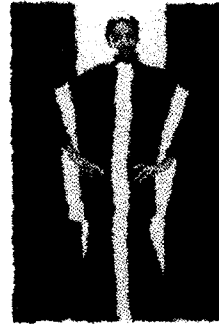
복식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착시를 일으키는 시지각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외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외모는 시대적으로 이상적인 인체를 의미하며 실제의 신체적 요소와는 항상 차이가 있으며 그 간격은 신체 장식이나 변형을 통해서 좁혀거나⁸⁾ 복식디자인으로 착시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대중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착시는 고립되어 있는 단일 요소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선, 형, 색채, 재질등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인체와 복식의 시지각은 시각적 형태와 환경, 지각자의 심리적인 변인들이 작용하므로 그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전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만 한다.⁹⁾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체로 지각되는 게슈탈트 심리학이론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착시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게슈탈트(Gestalt)이론과 착시효과

게슈탈트 이론의 기본은 전체는 부분과 부분의 총화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요점으로 부분들 간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¹⁰⁾ 인간의 시지각은 세부보다 전체적 특성을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등그라미로 그리는 것은 미술해사라기보다는 얼굴의 특성인 원형을 먼저 지각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¹¹⁾ 게슈탈트 원리중 도형과 바탕 전도(Figure and Ground Reversals)이론은 '모양다움'의 단서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도형 바탕중에 압도적인 것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서 착시 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배경이 되며¹²⁾ 이와 같은 구성으로 공간적 착시를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형 바탕이 반전하는 예는 체크무늬 같은 의복 무늬의에도 여러 복식 디자인에서 나타나고 있다.¹³⁾ <그림 1, 2, 3> 참조.



<그림 2> 의복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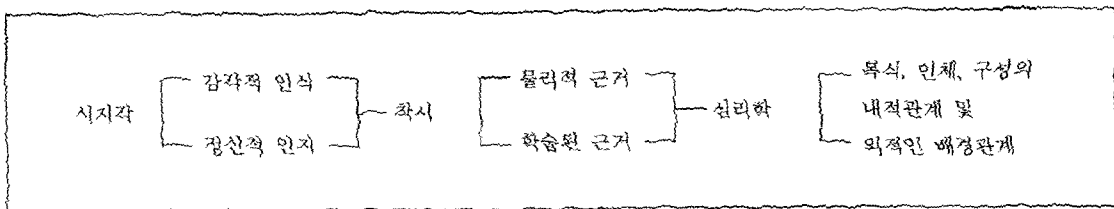
<그림 3> 복식디자인의 예



<그림 1> 도형바탕전도

Delong¹⁴⁾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복식, 인체 그 구성(Apparel, Body, Construction: ABC)에서 내적 관계와 외적인 배경과의 관계를 전체로 지각하는 시지각적 이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지각 표상은 언제나 일종의 형식을 소유하고 있어서¹⁵⁾ 가까이 있거나 비슷한 형태들은 함께 묶어져 분류되거나 형태를 변형시켜 가능한 한 파악하기에 좋은 형태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⁶⁾ 이와 같은 예는 의복 앞 중심선의 단추들이 선으로 지각되거나 연속무늬의 의복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형태들을 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지각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찰자의 지각이 '도형의 부분들이 전체에 귀속되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착시현상의

<표 1> 복식의 시지각과 착시의 원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¹⁷⁾ 이러한 착시현상들은 인위적인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 적용시킴으로써 체형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복식의 시지각과 착시의 원리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4. 복식 디자인요소와 착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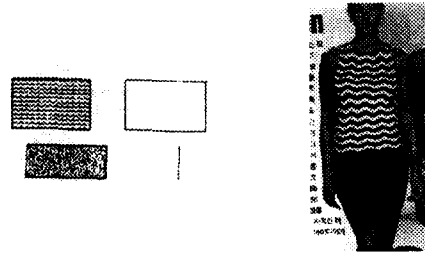
1) 선의 착시

Davis¹⁸⁾ 는 선은 경로, 연속성, 길이, 방향등의 9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측면이든 다양한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고 직선과 곡선, 불규칙선등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선의 형태에 따라 표현하는 성격이 다양하며 그 표현성은 의복과 주변환경의 목적을 나타내준다.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에서 풍성한 형태를 나타내주는 선은 결혼의 기쁨이나 사랑을 표현해준다.¹⁹⁾ 선의 방향도 형태만큼 영향을 미치며 수직선, 수평선, 사선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²⁰⁾ 의복에서 수직 방향이나 사선 방향의 선은 다양한 착시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으며 수직선은 날씬하고 키가 큰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복식에서 중요한 디자인요소로 사용된다. 그러나 복식디자인은 선뿐만 아니라 형과 형태를 다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들이 상호 작용해야 한다. 복식과 관련된 선의 착시에는 뮐러-라이어(Müller-Lyer) 착시와 수평수직 착시 등이 있다. 뮐러-라이어(Müller-Lyer) 착시는 부분들에 의해 전체가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를 나타내므로 게슈탈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의 착시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평수직 착시는 눈의 수직운동은 수평운동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눈의 운동이론²¹⁾으로 설명되며 복식에서 짧은 선을 가지고 수직강조의 효과를 이루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의 앞여밈, 솔기선등이 수평의 벨트가 있어도 여전히 길어 보이므로 수직의 착시효과가 더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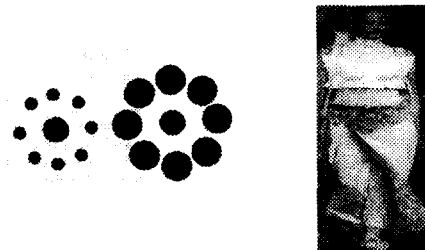
2) 형의 착시

디자인요소로서 형과 형태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

에 공간의 물리적, 심리적 분위기와 착시를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한다.²²⁾ 복식의 구조 부분은 속이 빈 형태이지만 인체가 착용함으로써 그 내부 양이 신체의 외부 윤곽에 관련되고 보완되며 신체의 윤곽을 따른다. 인체와 복식이 상호 작용하여 단순한 선, 명확한 실루엣, 광택 없는 재질은 평면효과를 일으킨다. 반면에 과장된 선, 광택 있는 재질은 입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원통형의 인체를 강조한다.²³⁾



<그림4> 오버트 착시



<그림5> 티체너와 립스 착시

의복에서 형의 개념은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다루어 질 수 있는데 인체 그 자체의 형, 의복 실루엣에 의해 만들어지는 외형, 실루엣 안에서의 각 부분들의 외곽선이 그것이다.²⁴⁾ 복식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이 세 가지 형태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도 3차원의 부피로 인식되는 인체가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게 된다. 복식과 관련되는 형의 착시에는 오버트(Aubert) 착시와 티체너-립스(Tichener and Lipps) 착시가 있다.²⁵⁾ 오버트 착시는 채워진 공간은 채워지지 않은 공간보다 커 보이게 하므로 복식에서는 다양한 무늬나 장식적 재질감의 사용으로

면적확대의 착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티체너-립스 착시는 비교되는 형들이 가까이 있고 눈이 그들의 차이를 과장할 때 일어나며 가슴과 엉덩이를 과장되게 디자인함으로써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는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

3) 색채와 착시

색채는 근본적으로 현상적 존재와 내재적 감각의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며 내재적 감각은 객관적인 현상적 색채에 대해 착각적인 비유를 만든다.²⁶⁾ 색채 착시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정상적인 시력을 갖는 사람들도 경험하며 두 색채가 서로 인접했을 때 발생하는 색채 대비의 착시가 대표적이다.²⁷⁾ 대비란 두 색채의 효과를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지각되는 것으로 색채 효과는 대비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²⁸⁾ 색채 대비에는 색상, 명암, 동시, 채도 대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대비가 있으며 의복에서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²⁹⁾ 한색과 난색은 원근을 암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형적 표현과 원근 효과를 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

며 복식에서는 진출 색과 후퇴 색으로 지각되어 착시현상을 일으킨다.³⁰⁾ 현재의 이상형인 마르고 날씬한 체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색이나 검정 색 복식을 많이 착용하는 것도 색채에 의한 착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방사는 밝은 부분에 대한 지각이 실제형의 테두리를 넘어 확산되어 보일 때 일어나서 밝은 부분은 커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작아 보이게 하며 의복에서 중요한 착시요인이 되고 있다.³¹⁾

4) 재질과 착시

재질은 신체의 형태나 크기와 시각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착시를 일으키거나 강조된 실체를 창출하기도 한다.³²⁾ 촉각에 의한 재질감인 촉감은 인체사이의 공간과 상호 작용하는 옷감 전체를 포함하므로 인체 외형의 크기를 많이 조작한다.³³⁾ 태의 특성인 유연성(flexibility) 즉 드레이프성은 옷감을 입체화시켰을 때 주름을 만들어 인체에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창출한다. 반면에 뻣뻣한 재질은 인체에서 돌출 되어 시각적으로 뚱뚱한 신체를 더 팽

<표 2> 복식디자인요소와 착시효과

디자인요소	착 시 효 과	복식과 관련된 착시
선	수직선: 길고 좁아 보인다. 수평선: 짧고 넓어 보인다. 사선,V선: 각도가 클수록 길고 좁아보인다 직선: 신체곡선을 완화, 둥근 신체를 완화한다 곡선: 신체곡선을 강조, 각진 신체를 완화한다	필러 라이어 착시 수평수직 착시 사선,V선착시 직선체형은폐착시 곡선착시
형	가늘고 수직적인 형: 길고 좁아 보이게 한다. 두껍고 수평적인 형: 짧고 넓어 보이게 한다. 신체에서 떨어진 확장형: 신체확장 효과 여유 있는 형: 체형을 위장	다양한넓이 착시 오버트 착시 티체너 립스 착시 모호한 형태 착시
색 채	반대색상, 명도, 채도의 상호 착시효과 밝은 부분 커 보임 어두운 부분 작아 보임 난색, 밝은 명도, 선명한 채도: 팽창시킨다 한색, 어두운 명도, 탁한 채도: 수축시킨다	색상대비 동시대비 방사 한난대비
재 질	무늬, 루프, 거칠거나 돌출한 재질의 착시 드레이프성 재질: 길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길이확장 바이어스방향: 길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길이확장 광택,뻣뻣한 재질: 신체 팽창, 부피 확대 퀼팅, 스모킹 장식적 디자인: 면적 확대	메워진면적효과 (오버트착시) 드레이프성재질착시 광택,뻣뻣한재질착시 장식적재질착시

창시키고 부피를 크게 하는 착시효과를 나타내므로 체형에 따라서 적합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복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재질효과가 변화하여 바이어스방향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므로 바이어스방향으로 마름질하면 더욱 드레이프성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킬팅, 스모킹등 장식적 디자인은 재질의 표면을 변화시켜 부피를 증가시키며 면적 확대의 착시효과를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복식 디자인 요소의 착시효과를 요약하면 위의 <표 2> 와 같다.

III. 복식 디자인과 인체

인체는 정교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복식은 이러한 인체와 밀착되어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하는 조형예술이다. 인체는 복식의 중요한 표현 대상이며 시대적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며 변화를 추구한다. 본 장에서는 각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 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인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식의 착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인체와 복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체의 물리적인 구조

인체는 선, 형, 색, 재질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머리, 목, 가슴, 팔, 다리가 수직축에 좌우 배열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며 인공적인 성형이 가능한 조형성(plasticity)을 갖는다.³⁴⁾ 복식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하나인 인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머리(얼굴), 목, 가슴, 허리, 배와 엉덩이, 팔과 다리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체형

체형이란 골격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진 체격에 근육과 피하지방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체형의 분류는 Hippocrates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³⁵⁾ Sheldon이 보다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3가지 주요

한 체형 유형을 제시하였다.³⁶⁾ Sheldon의 체형분류에 더 추가하여 Hillestad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⁷⁾ 이러한 Hillested의 체형분류를 바탕으로 Johnson은 남녀 모두에 있어 근육형인 중배엽형이 좀 더 남성적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의 이상형으로 남성은 골격이 큰 근육형의 중배엽형, 여성은 마르고 근육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3. 인체 비례

인간의 신체적 완전의 추구는 신체적 이상형에 대한 추구를 가져왔으며 이는 인체의 비율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스 시대에는 '조화된 비례'를 중시하고³⁹⁾ 인체는 물질이 이데아(Idea)로 변용된 이상적인 경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비례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⁴⁰⁾ 비례란 부분들의 상호관계에서 직관적으로 쾌적한 관계를 말한다.⁴¹⁾ 미는 선, 형, 빛, 비례의 시각적 질과 우아에 기초한 실체⁴²⁾라는 정의나 미의 조건은 완전성, 비례와 조화로 보는 것⁴³⁾등으로 비례는 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 비례는 길이가 중심이고 양의 비례는 무시되어 왔으며⁴⁴⁾ 시대나 민족,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⁴⁵⁾ Creekmore등은⁴⁶⁾ 각 시대마다 유행 복식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 비례의 기준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4. 인체와 복식 디자인의 착시

이상적인 인체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복식으로 인체를 은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법과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시각적 착시효과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와 복식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인체와 복식의 착시효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Flugel⁴⁷⁾은 복식으로 인체에 표현하고자 하는 장식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 강조등으로 구분하였다. 小川安郎⁴⁸⁾은 복식의 강조 방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인체 상방향과 하방향은 수직적 착시효과, 좌우형은 면적 확대의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Delong⁴⁹⁾은 복식과 인체관계에

〈표 3〉 인체와 복식의 관계

복식형태	복식의 인체표현성		
인체우선형	인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형		
복식우선형	인체과장형	상방형	인체의 길이를 강조한 수직적 착시효과
		하방형	
		전방형	인체의 크기를 확대한 면적강조 착시효과
		후방형	
		좌우형	
	축소형	인체의 축소를 강조한 형, 국부적 강조형	
인체은폐형	인체의 형태를 은폐한 형		

서 시각적 우선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Fiore⁵⁰⁾ 등은 이상적인 인체 미를 추구할 때 신장이나 체중보다 복식으로 인체 비례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Flugel과 小川安郎, Delong이론에 근거하여 복식의 착시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을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IV. 시대별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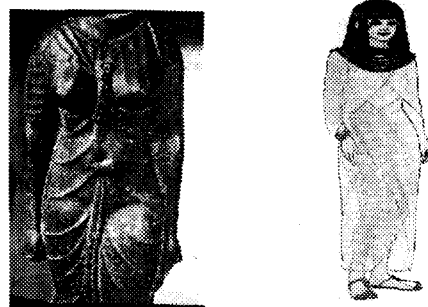
인체의 이상화된 이미지는 각 시대마다 인체를 재구성하게 하는 당대의 유행복식에 표현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이상적인 인체미가 복식사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복식사 문헌분류방식에 의해 시대를 구분하였으며 인체의 이상적인 미를⁵¹⁾ 표현하기 위하여 복식에 나타난 착시현상은 어떠한가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고대 이집트시대

여자의 인체를 다산이나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고 가슴과 배를 강조하였으며⁵²⁾ 이상적인 체형은 마르고 근육형의 6.5등신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³⁾

몸에 꼭 끼고 가슴을 노출하거나 투명하게 비치

는 의복으로 비활동적인 형태를 이름으로써 남녀 성차가 표현되었다.⁵⁴⁾ 〈그림 6〉은 재단이나 봉제를 하지 않은 드레이프형 복식으로⁵⁵⁾ 방사선 주름에 의해 복식에 의한 강조부위는 가슴과 배에 국한된 것이 고찰된다. 복식형태는 인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인체 우선형의 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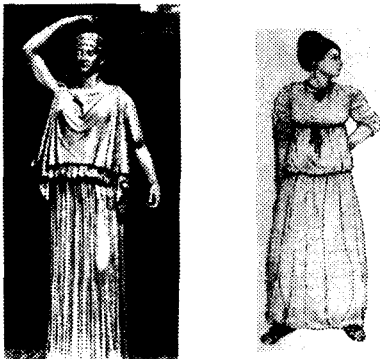


〈그림 6〉 고대이집트시대 복식

2. 그리스 로마시대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이상화된 '천상의 비너스'⁵⁶⁾를 이상형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인체에 대한 미의식은 비례를 중요시하여 '미란 각 부분의 조화적 비례 속에 있다'고 하였다.⁵⁷⁾ 즉 균형, 비례에 바탕을 둔 조화의 법칙을 중요시 여겨 인체 부분 상호간

의 올바른 비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남성적인 인체를 이상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근육형의 8등신이 이상적 인체형이었다.⁵⁸⁾ 투명한 드레이퍼리 복식은 인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⁵⁹⁾ 이 시대의 복식은 얇은 드레이프형의 복식을 가슴 바로 아래에 두른 끈에 의해 구분함으로써 인체비례로 표현되었다. <그림7>의 드레이프형 복식은 인체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연물로 생각한 그들의 미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얇은 드레이퍼리재질은 길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체의 특정부위를 강조하기보다 복식의 황금분할로 조화적 비례를 이룬 인체 우선형의 복식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그리스 로마 시대 복식

3. 비잔틴시대

중세의 인체표현은 추상적인 선적원리에 지배되었으며 평면성이 특징이었다. 그리스 로마복식의 단순성이 장엄함과 화려한 동방적 취향으로 바뀌고 종교상의 이유로 복식은 몸을 감추어서 체형을 감지할 수 없는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⁶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느슨한 튜닉형의 기본적인 옷을 입었으며 복식에 성적인 의미는 없었으며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⁶¹⁾

이 시대는 인체를 완전히 은폐한 풍성한 직선적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인체와 복식면적 강조형의 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8>에서는 다채로운 색상, 두터운 실크, 사치스러운 장식이 사용

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색채 감각과 결합하여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비잔틴 시대의 복식

4. 고딕시대

중세와 달리 인체를 객관적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이는 근대 미술의 입체적인 인체 척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⁶²⁾ 인체의 누드(nude)에 대해 자연성, 세속성등의 상징적 유형⁶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시각 대상으로서의 인체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지만 시각 그 자체는 전적으로 남성적인 특권이고 매혹 당하는 대상은 여성의 육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⁶⁴⁾ 인체의 이상형은 큰 머리, 좁은 어깨, 빈약한 가슴, 넓은 골반, 둥글고 볼록한 배, 가늘고 긴 팔, 다리로 표출되고 인체비례는 8.5등신으로 표현되었다.⁶⁵⁾ 복식으로 망토, 에닝(hennin), 빨랭(poulain)등은 수직의 인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교적 상징성과 함께 인체에 대한 수직적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피스의



<그림 9> 고딕 시대의 복식

일종인 꼬파르디(cothardie)도 고어드 스커트형으로 가로 재단선을 사용하지 않고⁶⁶⁾ 에닝과 마찬가지로

지로 수직의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일관되게 고딕 시대의 종교적인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그림9>에서 깊게 파준 V넥라인은 예닝과 함께 수직강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르네상스시대

그리스의 영향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중용의 미가 지배적으로 8등신이 미의 기준이었다.⁶⁷⁾ 초기에는 빈약하고 높은 가슴, 가슴둘레와 거의 같은 허리둘레, 긴 배로 원통형의 굴곡이 없는 체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여 중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미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복식을 통해 과장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스토마커를 착용함으로써⁶⁸⁾ 배의 길이가 아래로 연장되어 보이며 동시에 허리가 극도로 가늘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유도하였다. 형이하학적인 인체부위인 배를 강조한 전방형, 엉덩이를 강조한 좌우형, 몸통은 축소시켰으나 목 부위를 강조한 복식형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배를 강조한 전방형은 그 시대 이상형인 자식을 잉태한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욕망은 복식의 착시효과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⁶⁹⁾ 러프 칼라는 목 부위를 장식의 최대 포인트⁷⁰⁾로 간주한 그들의 이상 미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llander⁷¹⁾는 르네상스시대의 드레스는 그 자체가 예술이었고 완전무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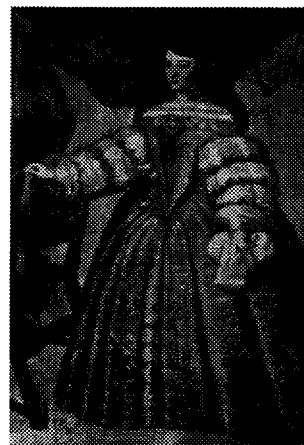


<그림 10>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그림10>에서 몸체와 스커트에 황금비율이 적용되었으며 큰 퍼프 소매로 수평적 느낌을 확대시켜 가슴선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허리는 극소화시키는 착시효과를 고찰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각형의 넥라인, 큰 퍼프소매, 패드, 좌우팽창을 강조한 파딩게일⁷²⁾에 의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착시효과에 의해 권위와 위엄을 갖춘 면적확대의 복식미를 추구한 것이 고찰되었다.

6. 바로크시대

실제 인체 크기인 7등신에 극적 변화를 추구하여 자유스럽고 비대칭적으로 표현되었으며⁷³⁾ 인체미의 미적 범주는 왜곡과 과장의 추와 비장미가 주류를 이루었다.⁷⁴⁾ 복식의 특징은 리본이나 루프의 과도한 장식으로 비례의 법칙에 어긋나는 추를 느끼게 하였다. <그림11>에서 레이스, 리본, 루프의 장식과 어깨선, 가슴곡선을 무시한 과장된 복식 형태로 부조화, 불균형의 복식미를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스, 리본, 루프로 우아미를 구현하였고⁷⁵⁾ 과도한 머리장식으로 수직강조의 착시효과를 강조하였다. 세속적인 여성미는 가슴은 강조되고 엉덩이 돌출이 시도된 X실루엣으로 표현됨으로써 허리는 더욱 가늘어 보이는 티체너-립스착시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바로크시대복식

7. 로코코시대

귀족 취미의 관능을 추구하여 선정적이고 예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다.⁷⁶⁾ 관능적인 욕망이 미적으로 조절된 보호하고 싶은 귀여운 여자의 이미지로 부드러운 피부와 통통한 몸매를 강조하였다. 약간은 비만하나 유아적인 인체 미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인체비례는 6등신이었다.⁷⁷⁾ 복식의 특징은 바로크시대에 유행했던 과도한 머리스타일인 풍탕주형으로 수직강조의 착시효과를 유도하였다. 레이스, 리본등은 로코코양식의 본질적 요소로 과도하게 사용되었으며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이었다.⁷⁸⁾ 스커트 면적을 파니어로 확대시키고 몸통은 꼴셋으로 줄라매어 상하의 실루엣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⁷⁹⁾ <그림12>에서 X실루엣은 비교되는 형들이 가까이 있고 눈이 그들의 차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일어나는 티체너-립스 착시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시대의 복식 형태도 X실루엣으로 나타나서 복식사적으로도 이상적인 인체 미와 디자인요소에 의한 착시현상이 부합되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 로코코 시대의 복식

8. 고전주의 시대

그리스 로마시대에 대한 향수와 동방적 취향의 결합이 나타나서 이성적인 양식으로 표명되는 시기

이다. 루소의 자연사상의 영향으로 인체는 신이 부여한 것이며 본래 모습대로 두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⁸⁰⁾ 그리스시대이후 이제까지 남성의 인체가 주된 표현대상이었으나 여성의 인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인체에서 만족스런 기하학적형태와 관능적인 감각을 찾아냈기 때문이다.⁸¹⁾ 투명한 드레이퍼리 재질로 인체를 드러내고 엠파이어 라인으로 가슴 이상만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⁸²⁾ 자연스러운 욕망의 대상으로 인체를 표현하고자 한 이 시대의 인체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13>에서 흰색의 단순한 슈미즈가운은 가슴아래부터 자연스런 수직의 주름으로 날씬하게 보이며 곁에 붉은 색숄을 착용하여 색상대비로 날씬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고찰된다.



<그림 13> 고전주의 시대의 복식

9. 낭만주의

인체에 대해 천상의 미와 세속의 미가 조화를 이룬 자연의 비너스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⁸³⁾ 이러한 천상의 비너스상위에 감성적인 자연의 비너스상은 르노아르의 '목욕하는 여인들'의 누드화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4>에서 어깨까지 노출된 데콜레테(decollete), 코르셋으로 성형된 가는 허리, 크리놀런으로 부풀린 스커트, 광택있는 실크재질, 플라운스, 러플, 리본등은 X실루엣의 인체미를 강조하여 인체와 복식면적확대의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인체에 대한 미의식⁸⁵⁾과 인체 표현성

시 대	인체에 대한 미의식	인체의 표현성	
		전반적 표현성	국부적 강조성
이집트	인체에 대한 자연성	자연성	가슴과배
그리스로마	이데아의 반영	조화성	전체비례강조 균형잡힌몸매
비잔틴	인체은폐	은폐성	인체면적확대
고딕	상징적 유형포함	죄악성	큰머리,배의곡선,높은허리선, 긴팔다리
르네상스	중용의 미	완전성	원통형몸매,작은가슴,긴배, 큰엉덩이
바로크	세속적 여성미추구	세속적관능성	큰가슴,가느허리,큰엉덩이, X실루엣
로코코	관능적 귀여운 여인	세속적관능성	큰가슴,가느허리,큰엉덩이, X실루엣
고전주의	자연스런 육망의 대상	자연성	가슴,다리
낭만주의	천상미 지상미의 조화	모성성 관능성	큰가슴,가느허리,큰엉덩이, X실루엣



〈그림 14〉 낭만주의 시대의 복식

이상으로 복식사를 통해 나타난 시대적인 인체 미의식과⁸⁴⁾ 인체의 표현성을 구분하고 정리한 것을 〈표4〉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위에서 시대적으로 이상적인 인체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체의 강조부위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체에서 원하는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요소에 의한 착시효과가 사적으로도 나타난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집트, 그리스로마, 고전주의시대는 복식형태가 인체 우선형으로 인체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드럽고 투명한 드레이프성 재질을 사용하였고

H형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인체 우선형의 복식도 국부적으로 인체를 강조하였는데 강조 부위로는 주로 가슴을 강조하였다. 복식 우선형은 인체를 은폐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원하는 인체부위를 강조하였다. 시대적으로 인체강조부위에 따른 디자인 요소의 착시효과에 대하여 구분하고 정리한 것을 나타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마다 이상적인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식으로 착시효과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체 우선형 복식에서는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H형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인체의 국부적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채색의 부드러운 드레이프성 재질을 사용하였다. 특히 가슴과 배로 집중되는 방사선 주름에 의해 가슴과 배의 곡선이 돋보이는 사선에 의한 착시가 이루어졌다.

둘째, 가슴선 아래 수평선분할과 수직의 드레이프성 주름으로 수평수직의 착시효과를 강조하였으며 투명한 드레이퍼리 재질로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슴선 아래 수평선 분할로 황금비율의 인체비례를 표현함으로써 인체비

<표 5> 복식형태와 착시효과를 위한 디자인요소

복식형태	시대	인체강조부위	착시효과를 위한 디자인요소	인체강조위한 착시원리	
인체우선형	이집트	가슴,배	얇은 흰색린넨의드레이프성재질,가슴과배로 집중되는 방사선주름으로 국부적강조, H형실루엣	방사선에 의해 가슴배의 곡선강조,사선의착시	
	그리스로마	전체비례, 균형잡힌 몸매	가슴아래수평선분할, 수직드레이프성 주름으로 황금비율의 인체비례, H형 실루엣	수평수직착시 수직착시, 황금분할	
	고전주의	가슴,다리노출 균형잡힌 몸매	투명한드레이퍼리재질로 인체곡선드러냄,가슴강조 H형실루엣,흰옷과 대비되는 진한색 술	수평수직착시,수직착시, 색채착시	
복식우선형	인체의 국부적 강조	르네상스	원통형몸매,작은 가슴,긴배,큰엉덩이	퍼프스매,패드,과당계일동수평선,큰 무늬,저명도,고채도면적확대,스토마 커매길이강조,러프칼라로목의국부적 강조,X형실루엣	오버트 착시 티체너립스착시 밀러 라이어 착시 V선착시,색채,무늬착시
		바로크	가는허리,큰가슴, 큰엉덩이	가는허리,큰가슴큰엉덩이강조하기위해스커트확대,루프,X형실루엣으로인체과장,큰머리장식면적강조	티체너립스착시,장식적 디자인착시 V선착시
		로코코	작은얼굴 가는허리,큰가슴, 큰엉덩이	가는허리큰가슴큰엉덩이강조,X형실루엣,파스텔톤리본루프장식	오버트 착시 티체너립스착시,장식적 디자인착시,V선착시,색채착시
		낭만주의	가는허리,큰가슴, 큰엉덩이	크리놀린,버슬로 X형,h형실루엣 변형된인체미강조인체면적확대	티체너립스 착시 후방강조의 착시 새질착시,색채착시,V선착시
	인체은폐형	비잔틴	인체은폐,인체면적확대	풍성한스타일,무늬보석장식재질로 인체면적확대	장식적재질착시 오버트 착시
		고딕	큰머리,배의곡선, 높은허리,긴팔다리 길고 연약한 몸매	에냉,망또,꼬따르디수직선선,긴트레인,H형실루엣	수직적착시,후방강조착시

례를 중요시한 시대적으로 이상적인 인체 미를 표현하였다.

셋째, 복식 우선형에서는 복식에 의한 강조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서 자연스러운 인체 미를 표현한 H형의 실루엣보다는 X형, h형의 변형된 실루엣으로 인체의 국부적인 강조를 위한 착시효과를 유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X형 실루엣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슴과 소매, 어깨, 엉덩이를 더욱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허리가 극도로 가늘어 보이는 복식 형태로 비교되는 형들이 가까이 있고 눈이 차이를 과

장할 때 일어나는 티체너 착시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무늬의 재질과 리본, 루프등의 장식적 디자인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면적확대의 착시효과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채워진 공간은 채워지지 않은 공간보다 커 보인다는 오버트 착시로 설명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대 이집트시대부터 낭만주의시

대까지 각 시대별로 인체에 대한 이상 미를 고찰하고 시대적으로 이상적인 인체미를 위한 인체와 복식관계에서 착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대별 미의식에 따라서 인체의 표현성과 강조부위도 변화하였고 착시효과를 위한 디자인요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식의 형태를 구분할 경우 이집트, 그리스로마, 고전주의시대는 인체 우선형 복식으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시대는 인체 곡부적 강조의 복식 우선형으로 비잔틴, 고딕시대는 인체은폐의 복식 우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체 우선형 복식에서는 부드럽고 투명한 드레이퍼리 재질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어 가슴을 강조하고 다리를 노출시켰으며 수직의 드레이퍼리 주름에 의해 수평수직의 착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슴과 배로 집중되는 방사선 주름에 의해 가슴의 곡선이 돋보이는 사선의 착시효과도 유도하고 있다. 복식 우선형에서는 큰 머리, 배의 곡선, 높은 허리, 긴 팔 다리등의 인체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망토, 꼬따르디와 함께 인체 상방형의 에닝, 인체 하방형의 뿔랭등의 디자인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수직적 강조의 착시효과를 유도하였다. 또한 인체 후방형의 긴 트레인, 버슬과 인체 좌우형의 파딩제일, 파니에등의 디자인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인체확대를 강조해서 X형, h형의 인체 미를 구현하는 티체너립스 착시효과를 유도하였다.

한편 곡부적 강조형의 하나인 인체축소형의 콜셋등의 디자인요소도 허리 축소강조에 의해 X형의 인체 미를 구현하였다. 크고 복잡한 무늬의 디자인요소는 채워진 공간이 빈 공간보다 면적이 확대되어 보이는 오버트 착시 효과에 의해 면적확대의 착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인체 은폐형의 복식은 인체 은폐로 인해 강조 부위는 없지만 보석을 장식한 두터운 재질과 풍성한 직선적 실루엣으로 신체 확장의 착시효과가 있었다.

이상으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까지 이상적인 인체 미와 복식의 착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이상적인 인체미를 구현하기 위해 착시 효과가 큰 여러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사례들을 고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대의 이상적인 인체 미

와 이를 위한 현대적 복식 디자인 요소들과 착시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 Y.: Harry N. Abrams, Inc., 1981)
- J. R. Block & Harold E. Yuker, Can you Believe Your Eyes?,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심리학, 신재원역, 도서출판 국제.
-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미술과 시각, 김춘일역 미진사, 1995
-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1980
- Ted polyhemus, Body style, Lennard Publishing, 1988
- Marilyn R Delong, The Way We Look- A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1987
- Harriet T. Mcjr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6
- Johannes Itten, Art of Color,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지구문화사,1999
- William Charles Libby, Color and the Structural Sence, 색채와 구성적 감각, 이양자역, 서울 미진사, 1992
-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Kim K. P. Johns, Impressions of Personality Based on Body Forms: AN Application of Hillested's Model of Apperance, C.T.R.J./8(4),(summer 1990)
- The Nude: a new perspective, Gill Sander, The Herbert Press, 1989
- 竹内敏雄, 미학예술학사전,안영길역, 미진사,1990.
- Dorothy Schefer, What is beauty: New definition from the fashion vanguard, Thames and Hudson, 1987.
- George Dickie, 미학입문, 서광사, 1988
- Greekmore, Anna M. & Pederson, E. (1979, July). "Body proportions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compared with the Greek ideal of Fashion Beau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6).
-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 Ann Marie Fiore & Patricia Anne Kimle,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7
- Kenneth Clark, The Nude, 누드의 미술사, 이재호역,

- 서울 열화당, 1982
- Anne L.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Avon Books, 1975)
- Peter Brooks, *Body Work-Objects of Desire in Modern Narrative*, 육체와 예술, 이봉지, 한애경역, 문학과 지성사, 2000
-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89.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7.
- 안연희, 현대 미술사전, 미진사, 1999
- 이미정, 의복디자인요소변화에 의한 형태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1999
- 최윤미,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1993
- 신명희, 지각의 심리, 학지사, 2000
- 박혜령, 의복디자인 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7
- 김지순, 실루엣에 의한 남성의 체형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윤동, 누드 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 임범재, 인체비례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0
-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장명규, 예술로서 표현되는 성의 양태와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민선, 김민자,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2), 1995
- 김태연, 김민자, 중세풍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 박숙현, 이정옥,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18(3)1994
- 최수현, 복식의 미적범주-르네상스, 바로크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박선훈,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봉구, 미술해부학, 선일문화사 1983.
-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역, 도서출판까치, p.421.
- 4) Rudolf Arnhem, *Art and Visual Perception*, 미술과 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1995. p18.
 - 5) Horn, op. cit. pp 421-422
 - 6)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p.392.
 - 7)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1980, pp.36-37.
 - 8) Ted Polyhemus, *Body Style*, Lennard Publishing, 1988, p.12.
 - 9) 이미정, 의복디자인요소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p.1287-1296.
 - 10) 김경희, 게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2000, p.34.
 - 11) 안연희, op. cit, p31
 - 12) 조열, 김지현, 기초디자인을 위한 형태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1999, pp.48-57.
 - 13) 최윤미,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1993, pp.137-149.
 - 14) Marilyn R Delong, *The Way We Look- A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1987, p.24.
 - 15) 신명희, 지각의 심리, 학지사, 2000, p.54.
 - 16) Ibid, p.55.
 - 17) Ibid, pp.58-59.
 - 18) Davis, op. cit, pp. 65-68.
 - 19) Ann Marie Fiore & Patricia Anne Kirmle,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p.140.
 - 20) Harriet T. Mcjims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6, pp.109-115,
 - 21) Delong, op. cit., p.113.
 - 22) Davis, op. cit, p.93.
 - 23) Fiore, op. cit., p.147.
 - 24) Horn, op. cit., p. 331.
 - 25) Davis, op. cit., p.45.
 - 26) Davis, op. cit, p.162.
 - 27) Horn, op. cit., p.345.
 - 28) Johannes Itten, *Art of Color*,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지구문화사, 1999, p.44.
 - 29) 박혜령, 의복 디자인 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30) William Charles Libby, *Color and the Structural Sense*, 색채와 구성적 감각, 이양자역, 서울 미진사, 1992, p. 115.
 - 31) Davis, op. cit., p. 50.
 - 32) Ibid, pp.231-232.
 - 33)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7, p.186.
- 1)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89.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7.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 Y.: Harry N. Abrams, Inc., 1981)
 - 2) J. R. Block & Harold E. Yuker, *Can You Believe Your Eyes ?*, 시각심리학, 신재원역, 도서출판 국제, 1995. pp. 10-11.
 - 3)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의복: 제 2의 피부,

- 34)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p.108. quoted in 류기주, op. cit., p12.
- 35) 김지순, 실루엣에 의한 한국 남성의 체형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36) William H. Sheldon, *The Varieties of Human Physique*, (N. Y.: Harper &Brother, 1940), pp.1-5, quoted in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op. cit., p. 46.
- 37) R. Hillesta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rance", *Dress*, 6, pp.117-125. quoted in 류기주, op. cit., pp16-17
- 38) Kim K. P. Johnson, *Impressions of Personality Based on Body Forms: An Application of Hillested's Model of Apperance*, C.T.R.J., 8(4), (Summer 1990), pp34-39.
- 39) *The Nude: a new perspective*, Gill Sander, The Herbert Press, 1989
- 40) 이운동, 누드 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pp.7-8.
- 41) 竹内敏雄, 미학예술학사전, 안영길등 역 미진사, 1990, p.265.
- 42) Dorothy Schefer, *What is beauty: New definition from the fashion vanguard*, Thames and hudson, p.35.
- 43) George Dickie, 미학입문, 서광사, 1988.
- 44)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p.49.
- 45) 임범재, 인체비례론-고대로부터 르네상스까지-,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0, p.11.
- 46) Greekmore, Anna M. & Pederson, E. (1979, July) . "Body proportions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compared with the Greek ideal of Fashion Beau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6).
- 47)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pp.46-52.
- 48) 小川安郎, op. cit., pp. 34-35.
- 49) DeLong, op. cit., p.49.
- 50) Fiore & Kimle, op. cit., p.331.
- 51)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52) 장명규, 예술로서 표현되는 성의 양태와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pp5-7
- 53) 임범재, op. cit., pp.25-28.
- 54) 이민선, 김민자,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류학회지, 19(2) 1995, p.343.
- 55) Horn, op. cit., p43.
- 56) Kenneth Clark, *The Nude*, 누드의 미술사, 이재호역 서울 열화당, 1982, p.98.
- 57) 임범재, op. cit., p.27-35.
- 58) Gill Saunders, op. cit., pp17-18.
- 59) Anne L.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1975), p.85.
- 60) 임범재, op. cit., p.162.
- 61)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 20.
- 62) Ibid, pp.42-43.
- 63) Gill Saunders, op. cit., pp9-10.
- 64) Peter Brooks, *Body Work-Objects of Desire in Modern Narrative*, 육체와 예술, 이봉지, 한애경역, 문학과 지성사, 2000, p.179.
- 65) 류기주, op. cit., p14
- 66) 백영자의, op. cit., p.198.
- 67) 임범재, op. cit., p.56.
- 68) 백영자의, op. cit., pp.231-239.
- 69) 박숙현, 이정옥,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1994, p.309.
- 70) 장문호, op. cit., pp.34-35.
- 71)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Avon Books, 1980), pp.35-36.
- 72)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르네상스, 바로크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p.63.
- 73) 이운동, 누드 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85, p.48.
- 74) 최수현, op. cit., p.66.
- 75) Ibid, p.76.
- 76) 장명규, op. cit., p.16.
- 77) Clark, op. cit., p.201.
- 78) 박섯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p.53.
- 79) 정홍숙, op. cit., p.254.
- 80) 박용숙, op. cit., p.54.
- 81) 김봉구, 미술해부학, 선일문화사, 1983, p.9.
- 82) Hollander, op. cit., pp.117-118. p.123, p 129.
- 83) 이운동, op. cit., pp. 64-65.
- 84) 류기주, op. cit, pp.42-49.
- 85) 류기주, op. cit, pp.42-49